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 행안부, 경상남도·밀양시와 함께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 개최
- 경남 유일 시 단위 인구감소지역 밀양시, 18년간 닫혀있던 옛 밀양대에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상남도·밀양시,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11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역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여 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 협업 콘퍼런스 취지에 걸맞게, 문체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국내외(한국·일본 등) 전문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청년 3인의 공동 주제발표(사람·공간·콘텐츠 협업으로 지역발전), ▲국내·일본 로컬브랜딩 전문가 기조발제, ▲매력적인 도시·머물고 싶은 생활권 주제의 소통협력공간, 문화도시 조성 사례발표 ▲로컬브랜딩 활성화 논의의 장(라운드테이블) 및 대화의 장(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특히, 기조발제자로 나서는 충남대 건축학과 윤주선 교수, 일본로컬벤처 협의회 기무라 시즈카 시니어 코디네이터, 평창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는 각각 ‘로컬의 매력을 담은 공간’, ‘지역 변화를 이끄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다움을 만드는 로컬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국내 및 일본의 로컬브랜딩 사례를 발표한다.

- 부대행사로는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문체부 문화도시 사업 관련 성과물 전시, 로컬콘텐츠 체험부스 등이 옛 밀양대 실내외 곳곳에서 운영된다.
- 콘퍼런스 개최 장소인 밀양은, 경남 유일의 시 단위 인구감소지역으로 행안부(소통협력공간)·문체부(문화도시)·중기부(상권르네상스) 등 다양한 부처의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며,
 - 옛 밀양대학교는 2005년 폐교 이후 18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으로 '22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을 계기로 현재 새단장이 진행되고 있다.
 - 행안부가 경상남도·밀양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밀양소통협력공간은 경남권역 로컬브랜딩 확산 및 지방소멸대응 연계 거점이자, 주민 모두에게 열린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내년 하반기 정식 개소 예정이다.
- 한편, 행안부는 '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10월 19일 공고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강점과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로컬브랜딩 거점 시설 구축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계기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지역활성화과	책임자	과 장	박병은 (044-205-3401)
		담당자	사무관	김원한 (044-205-3409)
		담당자	사무관	조은영 (044-205-3407)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Local + Branding

“지역 다움”

【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 지역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전략 】

사업 목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 ☑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역 자생역량 강화
- ☑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 ☑ 지역 강점·특색 강화
- ☑ 지역 정체성 강화
- ☑ 생활인구, 정착인구 증가



【 지역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소 】

사업 내용

-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 지역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10개 내외 사업 지원
 - 사업비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지역 주도의 사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 사업 전반에 가이드라인 및 상시 컨설팅 [9개소 소통협력공간 기반] 제공
 - 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한 지자체·전문가 포럼, 성과확산 등 추진

